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아프리카중동 권역



## 1년 동안 겪은 10년의 모잠비크

정지숙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짧지만 강렬하게 모잠비크 그리고 아프리카를 경험했다. 모잠비크...포르투갈어가 내 전 공이지 않았다면 살면서 한 번 정도만 들어볼 나라 이지 않을까 싶다. 이 국가에서 일하기 전까지 아프리카는 다 거기서 거기인 줄로만 알았다. 특히 모잠비크는 1인당 GDP가 500달러(한화 약 66만 원)도 안되는 국가로, 출국 전까지도 ‘너만 납치해도 3대가 먹고 살 거야’라는 친구들의 놀림을 듣곤 했다. 모잠비크에 도착한 첫날, 공항 바로 앞마을을 제외하고 내가 머무른 동네는 상상하던 아프리카와 달라 꽤 인상 깊었다.



모잠비크의 유명식당 piri-piri, 100년 이상 되었지만 여전히 북적북적하다.

첫 번째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글로리아 호텔(gloria hotel)이었다. 이 호텔은 수도 마푸토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변에 크게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두부나 콩나물, 냉동 대패 삼겹살과 같은 아시아 식재료를 취급하는 중국 마트를 끼고 있었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카지노, 영화관은 존재 자체만으로 모잠비크 생활에 큰 위안이 되는 존재였다. 물론 내가 지낸 곳에서 2km 정도 가면 바이아몰(baia mall)이라는 커다란 쇼핑몰이 있지만, 차가 없는 나로서는 글로리아 호텔 주변 마트가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참고로 모잠비크는 차가 없으면 정말 불편했다. 만약 2~3년 정도 머물 생각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차를 사지 않았을까 싶다. 아직까지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고, 샤빠(shapa)라는 봉고차가 있지만 적은 돈에 사람을 최대한 많이 태우기 때문에 외국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버스 정류장도 현지인들만이 아는 곳에 멈춰서 나는 주로 택시를 이용했다. 모잠비크에도 우리나라 카카오택시 같은 앱이 두 가지가 있다. 비바택시(viva taxi)와 얀고(yango)인데, 조금 웃긴 건 택시가 매칭이 되면 택시기사에게 나의 위치를 직접 전화로 알려야 한다는 거다. 그냥 매칭앱(matching app)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다. 택시 이용 후 기사가 잔돈이 없으면 그냥 큰돈을 주는

외국인이 많은 걸 아는지 잔돈을 들고 다니는 기사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소지는 필수였다. (일반 거리에서 이용하는 택시는 무조건 현금 지불)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인상 깊었던 두번째 요소는 치안이다. 너무 현지인들만 많은 바이샤(Baixa) 지역이나 지나치게 외진 곳을 제외하고는 밤에도 시내에 혼자 돌아다니는 기억이 많다. 모잠비크 거리에는 거지가 정말 많아 거리에 주차를 할 때도 주차요원인 척 하며 200~400원 정도의 돈을 요구하곤 한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코지를 당한 적은 운 좋게도(?) 없었다. 모잠비크에 체류했을 때 남아공을 여러 번 갔지만, 남아공과 비교했을 때 모잠비크 사람들은 꽤 순수했다. 여느 아프리카 국가처럼 부패가 만연하지만 요구하는 돈의 액수는 꽤 적은 편이었다. 처음에는 이 적은 액수의 돈도 주기 꺼려 하던 나였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항상 잔돈을 들고 다녔다. 이렇게 나는 모잠비크에 은은히 빠져들기 시작했다.

모잠비크에서 근무했을 때 바쁜 한국과는 다른 평화로움과 맑은 날씨, 바닷바람의 상쾌함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한국의 오랜 친구들이 그리기도 했다. 그래서 외로움을 없애고자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모잠비크에서 친구를 사귀려면 DJ가 있는 식당을 가야 한다. 한국과 조금 달랐던 건, 모잠비크는 파티를 주로 식당에 DJ를 불러서 한다는 거다.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매번 다른 DJ를 불러 다른 콘셉트로 파티를 연다. 물론 파티라고 해서 다들 일어나 춤추고 술을 마시는 건 아니고, 신

나는 노래만 나오는데도 분위기가 파티 같다. 아무래도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다 보니 브라질,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도 많고 그 국가들의 문화를 컨셉으로 파티를 열기도 한다. 내가 한국으로 오기 직전에는 일요일에 슈하스코(브라질식 바베큐)를 콘셉트로 브라질 DJ를 부르는 식당에도 갔었다. 그곳에서 사귄, 모잠비크에서 꽤 유명한 쿠바인 색소포니스트는 나를 여러 파티에 데려가곤 했다.

이렇게 친구를 사귀다 보니 내 취미를 모잠비크에서 활용할 기회도 있었다. 한번은 친구가 댄스 스튜디오를 하는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필라테스 강사를 구하고 있다 해서 나한테 가르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다. 프리랜서라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 모잠비크에는 필라테스 자체가 흔하지 않아 자신은 없었다. 그래도 포르투갈어로 필라테스를 가르친다니, 꽤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 흔쾌히 수락했다. 첫 달은 한 명으로 시작했고 국제기구 직원, 대사 사모님들을 상대로 가르치다 보니 금방 입소문이 나게 되었다. 모잠비크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한정되고 좁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를 하지 않아도 연락이 왔다. 그렇게 어느 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전 부인인 그라사 마셀(Graca Marchel)로부터 수업 제의를 받기도 했다. 자택에서 필라테스 개인 수업을 해줄 수 있냐는 제안에 망설임 없이 좋다고 했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이 과정에서 모잠비크의 '1%부자'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나중에는 더 좋은 기회가 생겨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모잠비크에 계속 있었다라면 필라테스로 사업을 했을 것 같다. 그만

큼 모잠비크는 사람과의 관계, 흔히 말하는 ‘인맥’이 중요했다.

모잠비크에 있을 때는 남아공을 특히 많이 갔다. 1년 동안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그리고 넬스프루트이라는 국경 앞 지역에 자주 장을 보러 갔다. 모잠비크 옆에 남아공이 있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했다. 장점이 있다면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남아공을 매번 쉽게, 금방 갈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장점 때문에 모잠비크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였다. 모잠비크에서 공산품이나 식료품은 가격대가 꽤 있는 편이다. 예를 들면, 모잠비크에도 호주 브랜드 울워스(Woolworth)가 프리미엄 마켓으로 통하는데, 가격이 남아공의 딱 2배라서 매번 남아공에서 더 좋은 질의 소고기를 절반 가격에 사 오곤 했다. 모잠비크에는 맥도날드가 없다 보니 한번 남아공을 가면 꼭 넬스프루트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잔뜩 먹고 돌아왔다. 비록 맥도날드는 없지만 각종 포르투갈어권의 음식이나 베트남 쌀국수식당도 너무 잘 갖춰져 있어 음식때문에 힘든 적은 한번도 없었다.

내가 1년 동안 겪은 모잠비크에 대해 얘기하면 ‘굳이 거기를?’ 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매번 거지들과 주차 문제로 싸우고, 도로 위의 부라꾸(buraco)라고 하는 구멍 때문에 자전거 타기도 위험하고, 차를 운전해도 구멍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야 한다. 외식 물가는 한국이랑 비슷해서, 한번 밖에서 밥을 먹으면 인당 2~3만원은 기본이며, 택시비도 2km당 약 4000원의 비싼 금액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모잠비크는 여전히 정이 많고, 평화롭고, 나 자신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며 기회가 많은 나라이다. 지금도 모잠비크는 생생하고 그림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고 싶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현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